유진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위클리에요

[Weekly: 2026/09/14~2026/09/20]

2026.09.21

[로봇] 움직이는 테슬라

- 빅웨이브로보틱스와 브릴스 신규 로봇 기업 IPO
- FCC 규제가 한국 기업에도 피해.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국 공장 설립 추진
- 어질리티로보틱스의 신버전 공개. 테슬라 옵티머스는 양산 돌입 소식

[방산] 미사일 쇼티지와 유럽

- 중동 발주 기대감 확대. UAE와 통합방공망 등 방산 협력 논의
- 드론 시연에서 실패 다수. 대공 레이저 체계 천광 등은 일부 성과
- 미국의 방산 계약 계속. 동맹국에 미사일 인도는 지연 가능성

[조선] 가스텍 후기

- 국내 조선소들 미래 먹거리 공개. 부유식 발전설비부터 FLNG 등 다수 인증
- 한화시스템의 필리조선소 매각. 오스탈은 미국 사업부 포함 통매각 추진 가능성
- 헝리중공업이 LNGC 진출 추진. 중국 LNGC 건조사 6개로 확대

[항공] 마일리지 통합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확정, 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국제항공 운수권 25개 노선 배분, 중국 노선 확대·지방공항 하늘길 확대
- 대한항공 60조 대미 투자 완료,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해운] 수에즈 복귀

- 대형 컨테이너 선사 수에즈운하 복귀, 홍해 정상화 비율 27% 도달
- HMM 현대무벡스 지분 4% 매각, 투자재원 765억 마련
- 중동 수출 물류 시계 '제로', 전쟁 장기화로 불안 가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움직이는 테슬라

테슬라가 본격적인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중국발 보도 다수 확인. 5천대 규모의 공급망 발주와 더불어 중국 내 공급망 Audit 수행 중이라는 정보. 기가 텍사스도 골조가 완성 단계 진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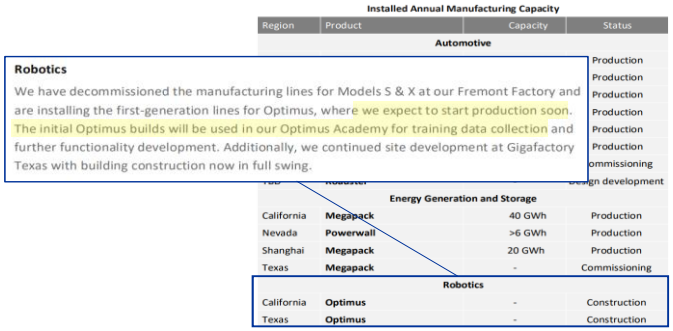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41)

[움직이는 테슬라]

- 테슬라가 최근 Optimus 약 5,000대 생산분에 해당하는 신규 주문을 공급망에 발주했다는 중국 현지 보도가 나옴. 수백대 규모의 시험생산 주문에서, 처음으로 천대 단위로 발주 규모가 올라갔다는 점이 포인트. 추가로, 중국에서는 테슬라 로봇팀이 9월 16일 중국 닝보에 도착해 17일부터 신규 Optimus 양산 공급망 Audit을 시작한 것으로 보도. 설계 Freeze 이후 생산 램프업 단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확인.
- 더불어, Giga Texas의 Optimus 전용공장이 철골 골조 완성 직전 단계 진입. 일론 머스크는 Giga Texas에 장기적으로 연산 1,000만대 규모를 목표로 하는 2세대 라인을 준비한다고 밝힌 바 있음. 참고로 텍사스 라인의 생산개시 목표는 2027년 여름 전후.
- 상기 내용은 모두 테슬라의 공식 발표가 아니나, 비공식적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 필요.

Key Chart: 테슬라 로봇 양산 관련 코멘트



Installed Annual Manufacturing Cap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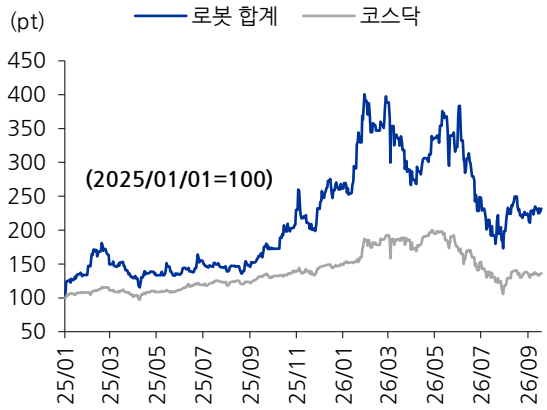
Region	Product	Capacity	Status
	Automotive		
			Production
			Production
			Production
			Production
			Production
			Production
			ommissioning
			ign development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California	Megapack	40 GWh	Production
Nevada	Powerwall	>6 GWh	Production
Shanghai	Megapack	20 GWh	Production
Texas	Megapack	-	Commissioning
	Robotics		
California	Optimus	-	Construction
Texas	Optimus	-	Construction

Robo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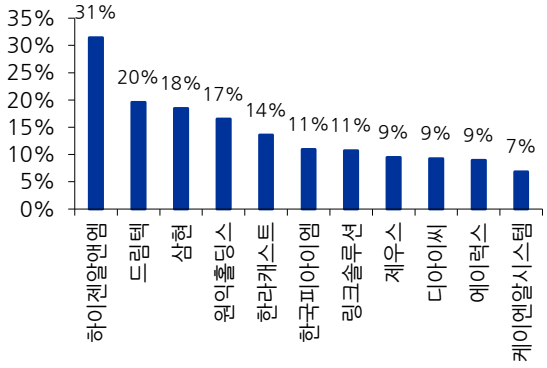
We have decommissioned the manufacturing lines for Models S & X at our Fremont Factory and are installing the first-generation lines for Optimus, where we expect to start production soon. The initial Optimus builds will be used in our Optimus Academy for training data collection and further functionality development. Additionally, we continued site development at Gigafactory Texas with building construction now in full swing.

자료: Tesla,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W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wise

로봇 주요 뉴스(09/14~09/20)

[휴머노이드]

- 로보티즈 IROS 2026 Sapiens 라이브 데모 진행
- 삼성서울병원, 휴머노이드 수술보조로봇 시연
- 원익로보틱스, 모바일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
- 삼성중공업·KIRO, 조선소 휴머노이드 개발 '맞손'

[부품/SW/기타]

- 노태문 삼성 사장 "로봇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
-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국에 생산시설 만든다
- 레인보우, 미 전쟁부 조건부 승인 9월 신청
- 두산로보틱스 신임 사장에 권영민
- 티로보틱스, 진공로봇·ESS 성장에 美 생산거점 추진
- 빅웨이브로보틱스, 일반청약 경쟁률 1375대 1
- '로봇 자동화' 브릴스 공모가 확정
- 현대코퍼레이션, '로봇 부품업체' 로보터스에 81억 투자

[글로벌]

- 애질리티, 23kg 운반 휴머노이드 'Digit 5' 공개
- 어질리티, 10월 6일 인베스터 데이 개최
- 테슬라, 옵티머스 5,000대 첫 대량 발주 소식
- 테슬라 옵티머스 공장 골조 완성 임박
- Figure, Helix 2.5 공개
- 보스턴다이내믹스 누적 손실 1.7조·상장 연기
- UR, 27년에 GPU 내장 협동로봇 출시
- 유비테크 中서 연 1만대 규모 공장 가동
-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범용 두뇌' 공개
- 도요타, 생산라인에 휴머노이드 40만대 투입한다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미사일 쇼티지와 유럽

미국이 유럽 등 동맹국에 미사일 및 방공체계 인도 지연을 통보. 이란 전쟁 이후 미사일 부족 때문. 한편, 유럽에서는 러시아 공격에 대한 위기감 고조. 드론·미사일 공격 증가 속 방공 수요 증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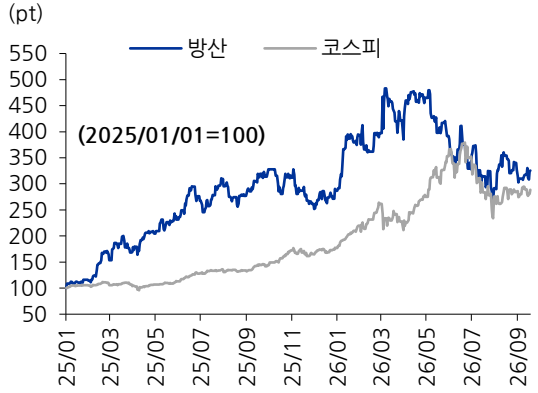
[미사일 쇼티지와 유럽]

- 미국이 유럽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일부 핵심 미사일·방공체계의 인도가 최대 5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통보.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 요격탄·정밀타격무기 재고가 대규모로 소진되면서 미군 자체 재고 보충을 동맹국 공급보다 우선하기 시작했기 때문. 미국은 CAPA를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공급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
- 문제는 미국산 미사일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 유럽 안보위협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것. NATO는 9월 들어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영공 침범과 하이브리드 공격이 최근 수개월간 증가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평가. 글로벌 방공시장은 **[위협 증가 → 요격탄 소모 ↑/ 미국 공급능력 부족 → 납기 ↑]**가 동시에 확인되는 중. 빠른 납기 + 지속 가능한 미사일 공급 능력이 수주 경쟁력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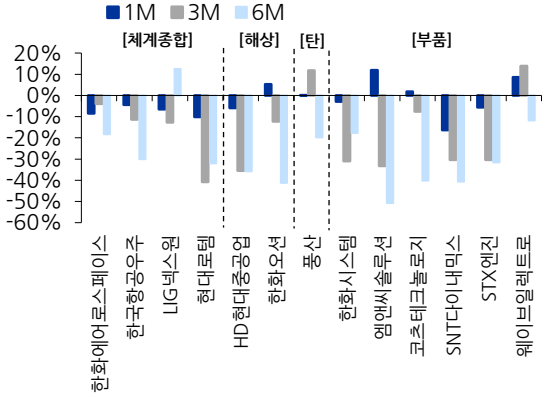
Key Chart: 러시아의 유럽 사보타주 동향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방산 주요 뉴스(09/14~09/20)

[수주/계약]

- 스위스 방공 도입 사업, 韓·佛·伊 SAMP/T '2파전'

[기업별 이슈]

- EDGE와 한화 L-SAM, M-SAM 및 천무 합작 투자 검토
- 한화시스템, UAE 통합 대공망 구축 추진
- 한화에어로, 독일 공장 부지 협상 돌입
- 한화,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모하비 STOL 시연 성공
- 한화, K9·천무 무인화-UGV 6종 구축
- 한화와 록히드마틴UK 레드백 40mm 포탑 통합
- 한화시스템, 美 필리조선소 지분 60% 매각
- LIG·KAI 노조, 한화 지분 확대에 '공동전선'
- 구미 LIG 공장 옥상 냉각탑 철거 중 불
- KAI, FA-50M 내달 말레이시아 첫 인도
- 현대로템 K2 전차 엔진 MRO 업체 확정

[기타]

- 강훈식, UAE 칼둔 청장 면담 "방산 등 협력 확대"
- 韓, 15국 외교단 초청해 K2전차·K21장갑차 화력 시연
- 軍 주관 무인기 시연행사서 '첨단드론' 추락 속출
- 덕산넵코어스 공모가 1만 4,600원 확정

[글로벌]

- 美, 동맹국에 미사일 인도 최대 5년 지연 통보
- 이란戰 비용 380억 달러, 무기 재고 회복 "최소 5년"
- 미국, 사우디에 240억 달러 F-35 판매 승인
- 노스롭그루먼, UJTS 사업에서 철수. SNC 단독
- 獨·美 패트리어트 및 공격 미사일 공동 생산 확대

Weekly Keyword

가스텍 후기

태국에서 열린 가스텍에서 국내 조선소들의 신기술 다수 공개. LNGC 및 친환경 선박 기술을 포함해, 최신 트렌드에 맞게 FDC 등 인증도 확보하는 모습 확인.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9)

[가스텍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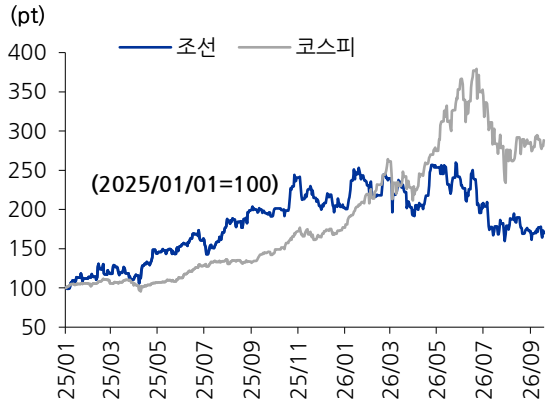
- 9월 14~17일 방콕에서 열린 Gastech 2026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성장동력을 다수 확인. 기존 LNG선 중심의 경쟁을 넘어 친환경 추진, CO_2 운송, 부유식 데이터센터·발전설비, FLNG 등으로 사업영역이 빠르게 확장되는 모습.
- HD현대는 27.1만㎥ 초대형 LNGC, 18.5만㎥ Hybrid Electric LNGC, 3.5만㎥ LCO_2 운반선 등 다수 신규 선형에 대한 선급 인증을 확보. 한화는 60MW급 Floating Data Center의 ABS AiP, 2.2만㎥급 LNG·암모니아 Bunkering Vessel의 ABS AiP를 획득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 액화공정 SENSE를 적용한 FLNG 설계에 대해 ABS·LR 인증을 확보. HD현대는 행사 주간 별도로 힘센(HiMSEN) 엔진 기반 100MW급 부유식 발전설비(BMPP)의 ABS AiP도 획득.

Key Chart: 가스텍 주요 공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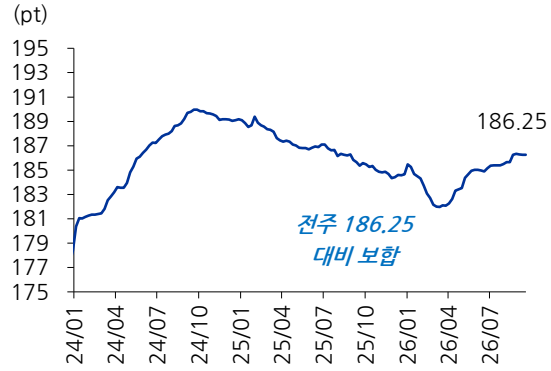
조선사	주요 공개/인증
HD 현대	27.1 만㎥ LNGC DNV AiP, 18.5 만㎥ Hybrid Electric LNGC LR AiP, 3.5 만㎥ LCO_2선 LR AiP, VesselWise 자율 보조기기 최적화 LR AiP, 크루즈용 LNG 벙커링선 AiP, **100MW 부유식 발전설비 ABS AiP**
한화	**60MW Floating Data Center ABS AiP**, 2.2만㎥ LNG/암모니아 Bunkering Vessel ABS AiP,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 무탄소 LNGC
삼성중공업	**자체 액화공정 SENSE 적용 FLNG ABS·LR AiP/BDR, Type-C 탱크 구조 인증**, Composite Support AiP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9/14~09/20)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263.0m LNGC 4척 수주
- 오만 아시아드, HD현대重에 MR탱커 2척 추가 발주
- HD한조양, 100MW급 부유식 발전설비 기본 인증
- 한화오션, 가스텍서 FLNG 개념승인 획득
- KR·한화오션, 18k LNG 벙커링선 공동 개발

[특수선]

- 태국 감사원, 한화오션 수주 조사 나설 듯
- 오스탈 창립자 "한화, 美 사업부 인수 지지"
- 오스탈 이사회, 미국 사업부 포함 '통매각' 추진
- 한화, 오스탈USA 현장 실사 진행
- 한화와 마그넷, 가을 MUSV 건조 착수. 내년 시험 운항
- 한국 조선, 그리스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 논의 진전
- 미 전쟁부 부차관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찾았다
- 한화 필리조선소, 취업박람회 참가
- 필리조선소 증설. 옛 美 해군 조선소 건물 임대

[기타]

- 삼성重, 'SENSE' 사업화 시동. FLNG 독자기술 확장
- 임단협 난항 HD현중 노조, 사흘째 부분파업
- DNV, HD현대重 271k CBM급 LNGC에 AiP 부여
- 한국선급, HD현대重 50K LPG 운반선 개념승인 수여

[글로벌]

- 헝리중공업, LNG 운반선 건조 사업 진출 추진
- 中 코스코, 2만TEU등 컨선 무더기 발주 재개
- Commonwealth LNG, 17.25 Mtpa로 두배 확장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마일리지 통합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으로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을 위한 핵심 소비자 이슈 해소.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 유지되며, 통합 이후 사용 기회도 확대될 예정.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9)

[마일리지 통합]

- 9/15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승인. 12/17 합병 이후 신규 적립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일원화되며,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 유지.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하거나 스카이패스로 전환 가능. 전환 비율은 탑승 적립분 1:1,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 1:0.82, 10년 이후 잔여 마일리지는 동일 비율로 자동 전환.
- 통합 이후 마일리지 사용 기회도 확대.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공급을 '24년 양사 합산 공급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도 '25년 양사 합산 대비 '27~'28년 106% → '29년 112% → '30년 이후 121%까지 확대할 계획. 마일리지 통합이라는 핵심 소비자 이슈가 해소됨에따라 12월 통합을 위한 주요 절차가 마무리되는 모습. 향후 예약·편명 일원화와 노선 및 기재 운영 효율화 등 실제 영업 시너지 가시화 여부에 주목.

Key Chart: 마일리지 통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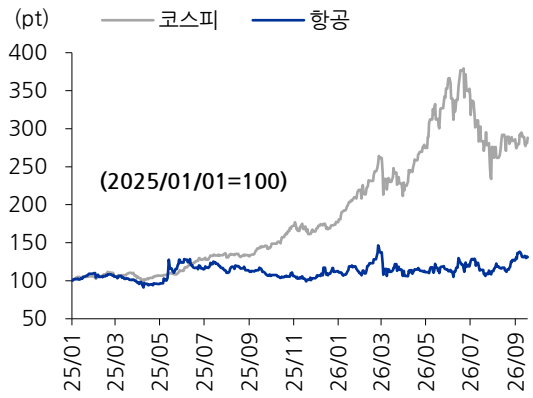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

아시아나로 유지	스카이패스로 전환	
통합 후 10년간 별도 운영	탑승 적립	1 : 1
기존 보너스 공제 기준 유지	제휴 적립	1 : 0.82
대한항공 운항 전 노선 사용	신청 시 보유분 일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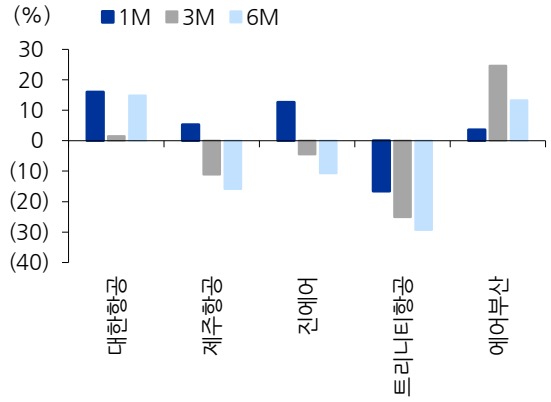
10년 후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 자동 전환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항공 주요 뉴스(09/14~09/20)

[여객/화물]

- 넓어진 한중 하늘길, 저비용항공사 '알짜노선' 운수권 확대
- 한미 항공 이용객 첫 400만 돌파, 항공사 공급 확대

[기업별 이슈]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 대한항공 22대 AI 드론 군집타격 시연, 국내 독자 기술
- 대한항공, 보잉·GE서 61조원 규모 항공기·엔진 도입
- 대한항공 10월 유류할증료, 뉴욕은 오르고 도쿄는 내린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 아시아나 임단협 마무리, 통합사 근로조건도 일원화
- 대한항공 아시아나 예약정보 이관, 통합 항공사 출범 본격화
- 아시아나 'OZ' 편명 역사 속으로, 대한항공 'KE'로 전환
- 통합 진에어 출범 준비 속도, 3사 승무원 비상탈출 시범
- 제주항공, 515억 규모 신규 사옥 장기 임차 결정
- VIG파트너스, 이스타항공 이어 에어프레미아 인수 추진
- 에어프레미아, 여객 및 화물 운송 성장세 본격화
- 한국-미국 하늘길 넓힌다, 파라타항공 내년 5월 LA 취항
- 트리니티항공, 새 브랜드 출범 기념 국제선 최대 18% 할인

[기타]

- 인천공항 T2서 위탁수하물 미탑재 잇따라 발생
- 국산 항공 복합재 키운다, 우주청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글로벌]

- 견조한 수요에도 고유가 발목, 미 항공 3사 감편 결정
- 일본 항공자위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비행 중 통신두절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수에즈 복귀

SCFI는 미주 운임 강세와 중국 항만 적체 등의 영향으로 8주 연속 상승. 수에즈 복귀율은 27%까지 상승했으나 이는 백홀 중심의 선복 재배치 성격으로, 실질적 공급 정상화는 아직 제한적으로 판단.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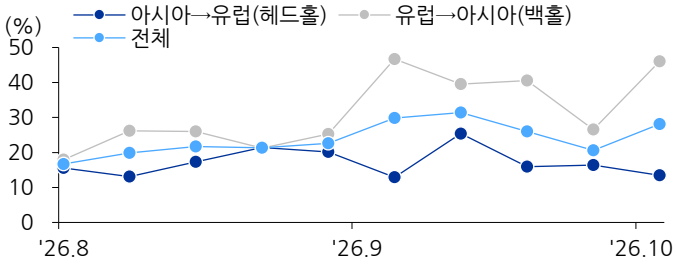
RA 임범수
02) 368-6168_ beomsu@eugenefn.com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2)

[수에즈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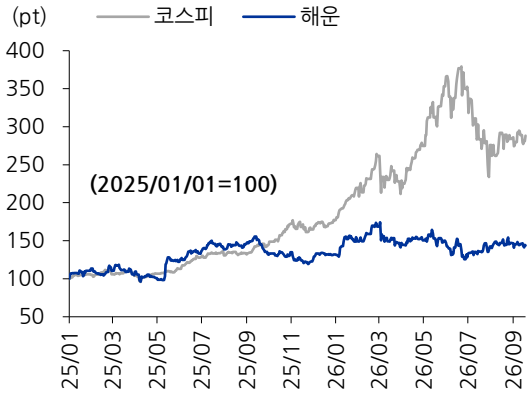
- 9/18 SCFI는 3,688pt(+0.7%wow)로 8주 연속 상승하며 2024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미서안 7,560달러/FEU(+3.0%wow), 미동안 10,579달러/FEU(+1.0%wow)로 상승하며 운임 강세를 견인. 중국 주요 항만의 적체와 국경절 전 물동량 집중 등으로 유효 선복 공급이 제한되며 높은 운임 수준이 이어지는 모습.
- 9월 아시아-유럽 항로의 홍해·수에즈운하 정상화 비율은 27%까지 상승. 헤드홀 비중은 13~25% 수준에 머무른 반면, 백홀은 25~47%까지 확대됐으며 특히 지중해발 항로의 비중이 57%로 높게 나타남. **현재 수에즈 복귀는 아시아로의 선복 재배치 목적인 백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헤드홀 공급 정상화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수에즈 복귀 확대에도 SCFI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컨테이너 시황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판단.

Key Chart: 아시아-유럽 노선 홍해 경유 선복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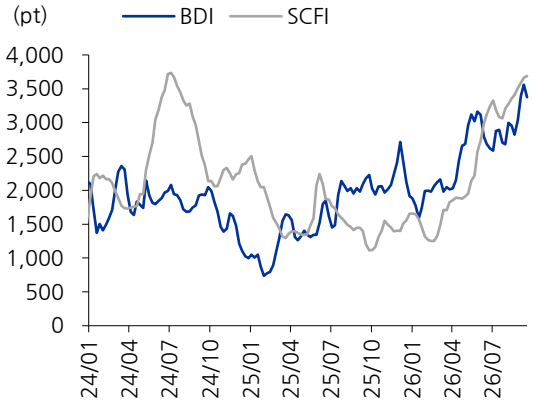


자료: Sea-Intelligence,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9/14~09/20)

[벌크선]

- 중국 후베이성 배터리 교체형 벌크선 89척 신조 발주

[탱커/가스선]

- 후티 반군 공세, 파이프라인 중단에 VLCC 운임 급등
- VLCC 등 모든 선종 선박 가치 역대 최고치 기록

[컨테이너선]

- MSC, 23일부터 인도-미서안 수에즈운하 경유 복귀
- Gemini, 아시아-유럽 간 4개 노선 수에즈 복귀
- 수에즈운하 복귀-홍해 정상화 비율 27%에 도달
- 수에즈 항로 대형선 복귀로 인한 병목 현상 우려
- 아시아역내 해운시장,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장악
- 中 CU라인즈, 14,000TEU급 선박 2척 신조 발주
- Maersk, 51억달러 규모 대형 컨테이너선 26척 신조 발주
- HMM 현대무벡스 지분 4% 매각, 투자재원 765억원 마련
- Xeneta, 중국-중동 노선 컨테이너 운임 사상 최고치 기록

[기타]

- 이란 "기뢰 폭발로 유조선 화재", 美 "거짓말, 드론 공격"
-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 블랙리스트 대상 추가지정
- 사우디 원유 우회공급 타진에 국제유가 3% 안팎 하락
- 美 해상봉쇄 막힌 이란, 튀르키예·파키스탄으로 육상운송
- 팬스타 아크로호 유럽 마지막 기항지 도착, 19일 부산 귀항
- 중국 자동차 수출 급증, 자동차 운반선 투자 증가